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May/June 2011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6** printed pages and **2** blank pages.



Part 1

Text 1을 주의깊게 읽고 Question 1 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1

아래 글은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신동원 엮음) 중 '고려청자 비취색의 비밀'을 다룬 글의 일부입니다.

고려청자가 수많은 도자기 중에서 유독 주목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단연 색상 때문이다. 청자라는 이름에도 다른 수식어가 아닌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 청(靑)이 붙었다. 즉 청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색깔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비취(翡翠), 옥과 비슷한 청자의 빛깔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神秘)함을 느끼게 한다. 옥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다. 흙으로 구운 도자기가 옥빛을 띠는 것은 마치 흙에서 옥을 빚어낸 듯한 느낌을 준다. 비색은 현재 한 항공사의 승무원복에도 이용될 만큼 빼어난 색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비색을 내면서 안정감 있는 모양새를 뽑내는 청자의 매력은 보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5

두번째는 고려청자의 용도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입구 좁은 항아리뿐만 아니라 찻잔, 기와, 주전자, 대접, 연적, 향로, 상자 등 다양한 생활도구를 청자로 만들었다. 물론 감상만을 위한 청자기도 있었다. 즉 고려청자는 고려인의 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이면서 전시해두고 즐기는 예술품이기도 했다.

10

여러 생활용품이 청자였다는 사실은 고려인이 청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대개 조선시대의 것이고 고려시대의 유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반면에 고려청자는 비교적 많은 수가 전해져 당시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소중한 사료로서도 가치가 크다.

15

세번째는 재현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현재 진품 고려청자는 가격이 수억 원 내외까지 치솟는 고가품이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지금도 고려청자의 비색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도예가와 과학자가 고려청자의 비색 재현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먼 듯하다. 말 그대로 비색(翡色)이 비색(秘色)이 된 것이다. 수백년간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 도도함 또한 많은 사람을 청자 앞으로 끌어당긴다.

20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예술성 역시 청자가 주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다. 조선 시대까지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서구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청자 또한 외부에 널리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 불과 약 100여 년 전부터 서구인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외국의 학자들도 감탄해 마지않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예술품이 되었다. 특히 고려청자의 새김무늬(상감) 기법은 금속기에 쓰이던 기법을 도자기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청자에 무늬를 넣은 것으로 그 중에서도 진사 기법은 오히려 중국에 역전파될 정도로 뛰어났다. 이런 기법 덕분에 장인들은 자신의 예술혼을 한껏 불어넣은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 수 있었다.

25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먼저 고려청자를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보자. 청자의 원료가 되는 태토를 정제하고 형태를 만든 후 잘 말려서 700~8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초벌구이를 한다. 유약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면 옅은 회색이 나온다. 거기에 철분이 포함된 유약을 입히고 1250도 정도에서 한번 더 구워낸다. 이때 환원불꽃에서 유약의 색이 변하면서 내는 푸른빛이 기물에 더해져서 나는 색이 비취색이다. 즉 회색 도화지에 투명한 푸른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참고로 백자는 두 번 구워낸 도자기도 흰색이고 유약도 흰색이다. 청자를 만드는 흙에 백자 유약을 발라도

30

35

그렇다면 유약의 푸른색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유약의 주원료는 식물의 재다. 소나무, 감나무, 고사리 등 여러 식물의 재를 사용하며 식물에 따라 색깔도 미세하게 달라진다. 재에는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소량의 철분도 포함되어 있다. 재에 있는 산화철과 태토에 있는 산화철이 환원불꽃에서 환원되면 은은한 녹색과 푸른색이 섞인 색깔이 나온다. 과거 청자를 만들었던 장인들은 정량 분석 보다는 원료를 하나하나 더하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빼어난 비취색을 얻었을 것이다.

환원불꽃을 조절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불꽃이 잘 조절되지 않으므로 구워진 청자의 상당수가 비색을 내지 못하고 결국 장인의 손에 박살난다. 이런 도자기 조각이 가마 주위에서 많이 발견되곤 한다. 또 발견된 도자기 중에는 한쪽은 환원불꽃을 받아 비색을 내지만 반대쪽은 환원이 되지 않아 황색을 내는 것도 있다.

45

특이한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발견되는 저급청자 전용 대형가마는 환원불꽃을 만들기 쉬운 구조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고급청자 소형 가마로는 환원불꽃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은은한 비색을 내는 고급청자의 성공률이 그만큼 낮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50

결국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흙 불꽃 유약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중 어느 한 가지에 비취색의 공로를 돌리기는 어렵다. 오늘날 비취색을 재현해내기 어려운 이유도 그만큼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맨 처음 비취색을 내는 방법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료의 차이 때문에 중국청자와 고려청자의 비색은 전혀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어떤 원료로 청자를 만드느냐가 청자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5

1 Text 1 을 읽고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을 쓸 때에는 가능한 지문의 내용을 쓰지 말고 자신의 문장으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 구사력 정확성에 따라 5 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 + 5 = 25 점입니다.)

- (a) line 2-8 에서 청자의 빛깔과 비슷한 색을 지닌 보석을 가리키는 단어 들을 찾아 쓰십시오. [1]
- (b) line 4 에서 청자의 빛깔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를 찾아 쓰십시오. [2]
- (c) 고려 청자의 두 가지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쓰십시오. [2]
- (d) line 20 의 ‘비색(翡色)이 비색(秘色)이 된 것이다’에서 앞의 비색과 뒤의 비색은 각기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2]
- (e) 예술혼이 담긴 아름다운 고려 청자를 만들 수 있었던 특수한 기법은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이 기법이 뛰어나다고 여겼는지 쓰십시오. [2]
- (f) 본문에서 고려 청자를 만드는 과정을 찾아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십시오. [3]
- (g) line 43 에서 ‘환원불꽃을 조절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는지 두 가지를 같은 단락에서 찾아 쓰십시오. [2]
- (h) 이 글에서 고려 청자는 중국 청자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했는지 찾아 쓰십시오. [2]
- (i) 이 글에서 고려 청자의 비취색은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했는지 자신의 문장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십시오. [4]

Part 2

Text 2 를 주의깊게 읽고 Question 2 에 답하십시오.

Text 2

다음은 조선 시대 백자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에 대해 쓴 최순우의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중 일부분입니다.

한국의 흰 빛깔과 공예 미술에 표현된 둥근 맛은 한국적인 조형미의 특이한 체질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의 폭넓은 흰빛의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부정형의 원이 그려주는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서 한국미의 본바탕을 체득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 시대 백자 항아리들에 표현된 원의 어진 맛은 그 흰 바탕색과 아울러 너무나 욕심이 없고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지닌 가식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5

외국 사람들은 곧잘 한국을 항아리의 나라라고는 부르지만 우리네의 집안 살림살이 세간 중에서 크고 작은 항아리 종류들을 빼 놓으면 집안이 허수룩해질 만큼 그 위치가 크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항아리들 중에는 잘생긴 작품이 매우 많다. 이 항아리들을 빚어 낸 사람들도 큰 욕심 없이 무심히 빚어 내었을 것이고 이것을 사들여 아침 저녁 매만지던 조선 시대 여인들도 그저 대견스러운 마음으로 무심하게 다루어 왔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남겨진 백자 항아리들이 오늘날 한국미의 가장 특색있는 아름다움의 한 가닥을 차지하게 되었고, 요사이느 잘생긴 백자 항아리 하나에 천만금이 간다고 해도 놀랄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다.

10

이러한 백자 항아리의 작가들이 비록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작품화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그들은 자신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항아리의 둥근 맛과 여기에서 저절로 이어지는 의젓한 곡선미에 남몰래 흥겨웠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비록 작가 의식을 가지고 계산해서 낱아 놓은 아름다움은 아니었지만 도공들의 손길은 그들의 흥겨운 마음을 따라 움직였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즉 모르고 만들어 낸 아름다움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15

아무런 장식도 고운 색깔도 아랑곳할 것 없이 오로지 흰색으로만 구워 낸 백자 항아리의 흰빛의 변화나 그 어리송하게만 생긴 둥근 맛을 우리는 어느 나라의 항아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대견함을 느낀다. 이러한 백자 항아리들을 수십 개 늘어놓고 바라보면 마치 어느 시골 장터에 모인 어진 아낙네들의 흰옷 군상들이 생각나리만큼 백자 항아리의 흰색은 우리 민족의 성정과 그들이 즐기는 색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한국 사람들은 백의민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 불러 보기도 했는데, 우리네의 흰 의복과 백자 항아리의 흰색은 같은 마음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겠다. 이웃나라 중국 자기나 일본 자기들이 그렇게 다채로운 빛깔로 온통 사기 그릇을 뒤덮던 시대에 우리는 마치 배꽃이나 젓빛깔에도 비길 수 있는 순정 어린 흰빛의 조화를 유유하게 즐겨왔으니 과연 한국 사람은 백의민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25

아주 일그러지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둥그런 원을 그린 것도 아닌 이 어리숙하면서도 순진한 아름다움에 정이 간다 하면 혹시 심미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선 자기의 아름다움은 계산을 초월한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리만큼 신기스럽고도 천연스러운 아름다움에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30

2 Text 1 과 Text 2 를 잘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자와 백자 달항아리의 여러 특징을 Text 1 과 Text 2 에서 찾아 비교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 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 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 점, 언어의 정확성에 5 점)

Copyright Acknowledgements:

- Question 1 © Shin, Dong Won and others; *Uri Gwahakui Susukkekki*; Hangeore Chulpan; 2006.
Question 2 © Choi, Soonu; *Muryangsujon Baeheulim Gidunge gidae Suhsuh*; Hakgojae; 1994.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